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3호 [루게 제2597호]

주제 109
(2020)년 6월
6일
토요일
음력 윤4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

지난 5월 31일 《탈북자》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반공화국베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사대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베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합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덤하게 돌아간것이다.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것들이 뭘 하던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

정말 가관이라 해야 할것이다.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그 바보들이 개념없이 《핵문제》를 론하자고 접어쓰니 서당개가 풍월을 짓었다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태몽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것이 저런것이니 구린내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쫓아내는것들을 두고 통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

통개들은 통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뭍쓸것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게 대한 비방증상을 꺼리낌없이 해낸 통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싶다.

나는 원래 못된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베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수는 없을것이다.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렇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것이 리해하기 어렵다.

얼마 있지 않아 6.15 20통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붙여대기 전에 제 집안으로 물들부터 똑바로 쫓아내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것이다.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것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오는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고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폐쇄가 될지, 있으나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랑립될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주제109(2020)년 6월 4일
평양

추악한 개지랄을 부린다

인간쓰레기들이 또다시 악의에 찬 반공화국베라들을 살포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가장 너절한 인간추물들이 감히 공화국령내로 수십만장의 베라를 날려보내는 추태를 부렸다. 조국을 배반한 한중도 안되는 속물들이 아무리

장서 날뛰는자들이 《탈북자》인간쓰레기들이다. 이자들로 말하면 한때는 무로교육, 무상치료 등 고마운 사회주의시책이 좋다고 만세를 부르다가 공화국이 내외원수들의 발악적책동으로 일시 곤란을 겪게 되자 일신의 안락과 부귀를 위해 부모

형제들은 물론 태몽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범죄자, 반역자들이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물욕을 없애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을 없앨때 대한 4대계명을 게를로 하는 우리 친도교인들은

이런자들을 인간오작품으로 락인하며 타매한다. 미친놈은 미친것만 한다고 이런 인간추물들은 지금이 시각에도 남쪽에서 너절한 행위만 일삼고있다. 인간이기를 그만두고 너절한것만 해대는 이런 인간쓰레기들을 우리 친도교인들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대결광신자들

배반도주하여 남의 집 처마밑에 기여든 인간추물들이 활개치며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며칠전 우리 제도를 등진 《탈북자》쓰레기들이 감히 공화국령내로 수십만장의 베라를 날려보내는 추태를 부렸다. 조국을 배반한 한중도 안되는 속물들이 아무리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긴다면

황실수설해야 탈방에 개짓는 소리에 애무것도 아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이 합부로 입부리를 놀려대는데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암묵적인 비호와 두둔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태를 묻은 조국을 버린 배반자나 남조선당국자들이나 한동아리라고 봐야 할것이다. 죄는 지은데로 가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

히 여기고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에 앞서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다

얼마전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신기신 기여나와 빌려댄 망랑짓에 대한 보도를 듣고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개도 닷새만 기르면 자기 주인을 안다고 했는데

하물며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을 배반한 개보다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 품수에도 맞지 않는 수작들을 저마끔 주어댔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런 정신적불구자, 인간쓰레기들이 마

구 날치도록 내버려두고 기여 목인비호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다. 《탈북자》들의 개소리이자 동족을 적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

조선당국자들의 녀두리이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먼저 시도 때도 없이 황실수설하는 비친개무리들의 주둥이부터 단단히 틀어막아야 한다. 평양시 평천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박성국

민족을 우롱하는 《자유》라령

기여도 《자유》라령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우롱이다. 지금 미친 베라살포망동을 부리는자들은 《탈북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는 몇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이다. 제가 나서자란 고향과 나라를 배반하고 도주하여 자기

의 태가 묻힌 곳을 주하며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는 이런 통개들이 짓는 소리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알수 없다. 나서자란 공화국에

서도 저주받고 남조선에서도 말쑥과 소동만 일으켜 못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너절한자들의 일간 망동, 비렬한 반민족적행위가 과연 《자유》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될수 있는것인가.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보다 한갓 통개들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비뚤어진 남조선사회, 그러니까 조국해방 75돐이 되어오는 오늘날까지도 친일매국노들이 제세

조국소식

황주진등물길공사 착공, 10만산발파 진행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과 농촌수리화정책에 따라 대규모의 황주진등물길공사가 착공되었다.

황해북도의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길공사는 수백리 자연호름식물길을 조성하여 드넓은 황주진등비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황해남도물길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건설자들이 조국번영의 만년재

부를 또다시 창조해갈 열의드높이 공사착공을 알리는 10만산발파의 장쾌한 피성을 올리였다.

발파를 맡은 황해북도려단에서 흙물길로선상에서 발파구역을 바로 정한데 맞게 건축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발파효율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고 암질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였다.

물길공사의 돌파구를 열 어찌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한 러

단의 건설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등을 보장하여 수직갱, 가지갱굴진, 장약실질기 등 일일정비작업과제를 120%이상 해제하였으며 운전사들도 자검자수체계를 세우고 가동률을 높여 필요한 물동량을 제때에 수송하였다.

불리한 암질조건에 맞게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고 고대사이 협동을 강화한 결과 발파준비사업이 짧은 기간에 결속되었다. 모든 준비가 빈틈없이 완료된 속에 2일 10만산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들 광범히 선전보급

중앙과학기술동보사에서

중앙과학기술동보사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추동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들에 대한 선전보급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있다.

근로자들을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보봉사활동을 혁신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많은 과학기술잡지와 도서를 출판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최신자료들을 신속정확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최신과학기술성과와 발전

추세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홍남비로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수백개 단위에 부분별, 직종별자료기지를 구축해주었다.

근로자들의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검색관리체계 《광명》이 보다 편리하게 갱신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기여하는 40여만건의 성과자료들이 새로 구축되고 과학기술자료주분봉사체계가 도입된 이 흙제리용자수는 날 따라 늘어나고있다.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10여종의 새 기술잡지 및 도서들이 편찬되었다.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근로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도서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잡지, 과학기술자료들은 독자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상식자료들이 입력되어있는 관형컴퓨터 및 손전화기응용프로그램들도 사용자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의 가을로 이어질 대규모관개망

얼마전에 황해남도의 대규모관개체계가 훌륭히 완성된것은 나라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병성군, 강령군, 웅진군, 봉천군, 청단군과 새로 개간되는 룡매도간석지 등 서해곡창의 드넓은 전야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대주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나라의 서부지구에 대규모의 관개망이 특색있게 형성되어 해마다 수천만kWh의 양수동력용전력과 수많은 양수설비들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재령강, 레성강하류지역의 큰물피해를 미리 막아 국토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대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수 있게 되었다.

황해남도물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정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사업,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물길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황해남도의 관개용수문제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 추켜세우는데서 물길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온 나라를 대자연개조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그리하여 2012년 1월 황해

남도물길건설이 착공되었다. 황해남도물길건설은 압만 굴착과 토량만도 1180여만m³에 달하고 수십개의 물길굴과 770여개의 각종 구조물, 대규모용수장관들을 가진 190여km의 물길을 형성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자연호름식관개망에서 규모가 제일 큰 대건설전투였다. 건설자들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와 자연의 광란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이겨내며 사회주의조선의 재부를 마련하는 거창한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1단계 공사시작부터 비약의 열풍이 세계에 일어났다. 사품치는 강물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가물막이언제를 쌓아올리고 새로운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며 돌격전을 벌린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

에 의해 지수지연제기초굴착과 성토, 장석쌓기와 콩크리트라입, 물길굴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가 적극 추진되어나갔다.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대자연을 다스리며 5년간의 격전을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 2017년 1월부터 2단계공사에 진입한 건설자들은 살을 에이는 강추위와 찌는듯한 무더위, 몰아치는 칼바람속에서 감람을 퍼내고 대형화물자동차들과 굴착기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물길건설의 기본건설인 봉천호언제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했다. 거창한 창조의 나날속에 140만여m³의 모래와 자갈, 진흙으로 든든히 다져진 저수지

언제가 《자력갱생》이라는 글발을 새겨안고 우뚝 솟아올랐으며 290여개소의 각이한 구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건설자들의 이악한 노력에 의하여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솟아나고 물길건설주변의 산과 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들이 뿌리내려 풍치를 두우고있다. 만풍년의 첫출기인양 수백리 산과 들을 꿰지르며 뻗어나간 대규모의 물길로 관개용수가 흐르고있는 모습은 불수록 장광이다. 정면돌과천의 첫해인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뛰어넘어 이 절정할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의 열의를 드높여주며 서해곡창지대의 드넓은 벌들로 생명수가 쉬임없이 흘러들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겨레에게 줄 가장 훌륭한 선물

주체61(1972)년 5월 2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을 만나시었다.

미국기자들이 평양에 체류하고있을 당시 국내외정세는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0(1971)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인민들에게 8개 항목의 통일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내보내도록 주동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북과 남을 비롯한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킨 8개 항목의 통일방안제시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조국통일의 열망이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었다.

다음해 5월에는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민족의 통일열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이 평양에 찾아온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은 그이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가르침을 받고난 기자들은 그이께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겠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조선민족은 한민족을 이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선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겨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며 조국통일을 기어기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들으며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은 김일성주석이사야말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 분이기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었다.

조국통일을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민족사적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우리 겨레는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을 불러

지옥의 감방안에서 수십년을 뉘우들의 악행에 시달리면서 통일신념을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은 공화

국의 품에 안기어서도 의로운 통일할 동을 계속 벌리었다. 비록 시인은 아니지만 통일의 길에 한점 빛을 더해 줄 좋은 시들을 써내 우리 겨레를 고무하였다.

박문재도 그들중 한사람으로서 수

십년을 지옥의 감방안에서 모진 악행에 시달리면서도 전향서를 쓰지 않았던 깨끗한 그 손으로 시 《통일성업에 나서자》를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시)

통일성업에 나서자

비전향장기수 박문재

사람들이여
부디 이 말을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분렬》이란 두 글자속에 들어
있는
갈라진 민족의 비극을
그대들은 잊지 마시라

조국통일성업에 청춘을 바친
장한 아들들
사상 《전향》에 불복한
죄 아닌 《죄》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청춘들...

철창속에 갇혀
뉘우들의 증세기적고문으로

끝날같은 청춘들이
불구가 되고 폐인이 되고...

물어보자 사람들이여
수수천년 한피줄을 나눈 우리
민족이
어이하여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갈라진 강토를 그려내고
피눈물 흘리며 땅을 쳐야 하는가

대대손손 이 땅에
태를 묻고 살던 우리 민족
의세의 칼부림에
두동강나 몸부림치는데
민족의 아들 우리가 어찌
참고 보고만 있을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몸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거든
단군민족의 넋이 살아있거든
해외에 있던 남에 있던
합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을 위한
통일성업에 나서야 하리

통일은 애국 분열은 매국
우리 민족모두가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 령도따라
통일성업에 떨쳐나서자

(2001년 창작)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통일론의의 금지를 반대배격하여

남조선에서 범법적인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을 반대배격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 박정희매국 《정권》은 파쇼화정책을 더욱 강화하는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군사파쇼당당은 평양과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념원을 짓밟으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준비에만 광분하였다. 특히 반공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면서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강고히 말살하였으며 력사에 류례없는 파쇼정보통치를 실시하였다.

매국도당의 파쇼적공세가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은 굴함이 없이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었다.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는 박정희매국도당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통일을 론의할수 있다고 하면서 취한 통일론의 금지조치를 견결히 반대배격하면서 그것을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요망을 배신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도피행위》, 《통일보다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통일문제는 《민족의 념원, 당면과제로 언제나 부단히 론의되고 추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그 앞

잡이들이 분렬정책의 방패로 삼고있는 《유연감시하의 통일안》이라는것을 한결같이 배격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으로 락인하였으며 출로는 민족의 자주적힘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언론계도 《통일문제를 막연하게 타의에 맡겨버릴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게 자주성을 살려 추진성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통일문제 강대국들에 의하여 처리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민족주체주의를 높여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 《민족주체세력의 형

성이 빠르면 빠른수록 통일에로의 길은 가까와온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이 양양되는 가운데 정계에서는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통일방안》은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수락하는 통일안》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통일로 한결같은걸음 걸근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세력, 반통일세력에 맞서는 민족자주세력, 통일력량의 힘이 날로 더욱 장성강화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통일투쟁의 앞장서 선 북남의 로동자들(2004년 5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성악재능을 마음껏 꽃피운 광복있는 너가수

1930년대초의 어느날 서울에서 열린 여자중학생들의 전국적인 성악콩쿨무대에 13살 난 소녀가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다.

쌍태머리의 어린 소녀가 부른 노래는 전문가수들도 형상하기 힘들어하는 이말리아가요 《오 나의 태양》이었다.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울리는 청아한 노래소리에 관중들은 대변에 심취되고말았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원들도 경연참가자들도 놀라운 재능을 보여준 나이 어린 소녀에게 야깁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삶의 어둠을 밀어내고 앞날을 밝게 비추려 해님이 그리워 애타게 《오 나의 태양》을 부른 소녀는 후날 재능있는 너가수 노로 자라난 권원한이었다.

수난당하던 조선사람 누구나 그리워하는 그 해빛이 그리웠지만 삶에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았다.

가난의 서러움속에 고향인 회령을 등지고 여기저기 떠돌던 그의 가족이 정착한 곳은 서울이었다.

울창줄망 아홉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살리느라 집현원은 말이 아니었지만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불리울만한 노래를 잘 부르던 말인 권원한의 남다른 재능만은 어떻게 하나 키워주려고 원심을 썼다.

이렇게 되어 나이 어린 권원한이 서울에서 열리는 성악콩쿨에까지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성악콩쿨에서 1등을 한것이 연고가 되어 그는 후날 리화녀자전문학교 음악과(당시)에 입학하였다.

그는 늘 학비만에 시달리었고 전차를 타는 돈도 아까

위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다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리고도 어쩔수가 없어 학교를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권원한의 인품과 목소리를 아깝게 여기던 우사 김규식선생의 녀동생인 김계석이 그를 양말포 삼아 학교를 겨우 졸업할수 있었다.

1944년 학교를 졸업한 권원한은 친구의 소개로 중국 동북에 건너가 심양의 선린녀중학교에서 음악교원이 되였지만 폐망을 앞두고 온 동북방을 피하다가 잡고어버린 일제의 만행에 몸서리를 치며 이듬해에 다시 서울로 나오게말았다.

해방이 되자 권원한은 한성중학교 음악교원으로 있으면서 서울교향악단 독창가수로 일약 무대에 나서게 되였다.

여기저기서 권원한에게 가곡의 주역을 맡아달라고 청탁하는 속에 《동백꽃아씨》, 《춘향전》을 비롯한 여러 가곡들에 주역으로 출연하게 되였다.

서울시민들은 권원한이 출연하는 가곡을 보기 위해 시공관(극장)으로 밀려가곤 하였고 그가 거리에 나서면 《미인가수》를 구경하겠다고 떠돌아다니곤 하였다.

하지만 외세에 짓밟힌 남조선땅에서 참다운 예술에 대한 그의 갈망은 꽃피어나기 힘들었다.

거리거리에서는 인민위원회 회관관들이 내리위치고 어제날의 친일매국도들이 제세상인듯 돌아치고있었다.

참다운 예술을 갈망하는



권원한선생

뜻있는 문예인들이 하나, 둘 북행길을 택하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권원한도 김일성장군님을 몸서리하며 흠모하게 되였으며 공화국에서 불리우는 노래들을 조용히 배워보곤 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해방되자 권원한은 그 거리에 달려나가 노래를 불렀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불리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아름다운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추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토록 해빛을 갈망하던 너가수가 해방된 서울거리의 한복판에서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격정을 터쳐 목청껏 태양송가를 부른것이였다.

권원한은 해방된 서울의 가는 곳마다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무대가 따로 없었다. 강당에서도 부르고 큰길가에서도 불렀다.

이름있는 가수가 심장으로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매혹되어 김장군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책방방을 뚫쳐로 용약 인민군대에 원한해나섰다.

후날 권원한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자기의 예술활동나날에 그때처럼 열렬한 청중을 가져본적이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당시 권원한은 남조선음악가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전선지구경비사령부후견단(당시)에 망라되어 녀성성악조를 책임지고있으면서 전선과 해방지구들을 돌며 순회공연을 벌리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권원한은 조금도 주저없이 북행길을 택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도, 겨레의 밝은 앞날도 오로지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꽃피날수 있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기때문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은 간고하고 넘어야 할 험한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많았지만 너가수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 굴함없이 길을 걸었고 허기진 배를 조이며 공연에 몰두하였다.

그후 그와 일행은 국립예술극장(당시)에 소환되었다.

그가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본것은 1950년 12월 23일이었다. 그날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축하공연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노래가 끝나자 선참도 박수를 쳐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던 일군들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처음 보는 가수인데 어서 온 동무인가고 물으

시었다.

남반부에서 온 가수인데 서 울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한테 왔다는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동무라고, 이런 배우는 어디서 찾으려고 하어도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남반부에서 들어온 작가, 예술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이때부터 설움속에 해님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던 권원한은 진정한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할라도 예술인의 태오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었다.

1951년 4월 권원한은 또다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5.1절경축공연에 참가하여 독창을 불렀다.

그가 노래를 마치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시며 부판을 시켜 자신께서 받으셨던 꽃다발을 그에게 가져다주게 하시었다.

평범한 가수의 가정용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아버비의 다정한 사랑에 권원한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 권원한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다양한 정황속에서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인민군소조를 과격하도록 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권원한의 가족들도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는 1951년 7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그의 독창을 들으시고 노래에서는 권원한동무가 확실한 판목이 있다고 하시면서 민족가극도 많이 했고 다른 나라의 가극과 노래도 한것만 큼 축전기간에 그를 내세워 우리 나라 민족예술을 널리 소개하는것이 좋겠다고 깊은 은 심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47(1958)년 10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권원한이 부른 노래를 들으시고

권원한동무는 성악가수로 력사가 있다고, 자신께서는 지금도 그가 부르던 《어머님의 노래》와 《고향의 어머니》, 《젊은 병사의 노래》가 인생에 남아있다고 뜨겁게 추억하시며 그를 잘 평가하여주어야 하겠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었다.

그는 사람속에서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불리울 정도로 무대생활에 전념했고 평양은 물론이고 멀리 지방과 먼바다에도 단단히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예술인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였다.

늘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관중들과 친숙해진 너가수는 이렇게 보람차고 긍지높은 인생길을 걸어왔다.

세월은 흘러 사람들의 절찬을 받던 너가수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었다.

그러나 수십년전 민족가극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권원한을 잊지 않고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11월 여든번째 생일을 맞은 그에게 은 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고 로가수의 독창회를 열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처럼 고품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80여명의 로가수의 독창회가 깊은 추억과 뜨거운 감동속에 진행되게 되었다.

권원한은 생을 마치는 날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청춘의 활력을 안고 보람의 한결을 변함없이 걸었다.

정녕 품고있는 생각도 모두다 말을 하고 읊어나는 회망도 터놓는 위대한 아버지품, 공화국의 품에 안기어 너가수는 값높은 인생 길을 걸을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권원한독창회의 한 장면(2000년 11월)

죄악을 찬미하며 복침을 꿈꾼다

력사의 비극을 재현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황당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이 곧 다른 비극의 시작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왕 이것을 잊고 스스로 치욕의 수렁에 머리를 들이미는 자들이 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바로 그렇다. 지금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6.25전쟁 70주년》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각종 반공화국행사를 대대적으로 벌려 하고 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벌려 하는 광대놀음에는 인신상륙작전을 비롯한 《주요 전투》들의 재현,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침략군대의 고용병들에 대한 위로연, 《특별전시회》와 예술공연 등 별의별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악이 뒤바뀐 반공화국대결광대극들은 가소롭게도 그 무슨 《평화지향》의 간판 밑에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력사와 진실에 대한 과렴치한 외곡이고 모두

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도대체 지난 조선전쟁을 놓고 무엇을 《기념》하겠다고 하는가. 지난 조선전쟁이 청소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암살하기 위해 외세가 리승만 《정권》을 사후하여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 력사상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야만적인 살륙전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력사는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전쟁

참화를 들춰냈으며 삼천리강도를 초조화한 제국주의 침략세력들의 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치밀리는 범죄를 찬미하는 놀음을 크게 벌려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괴뢰치한자들인가. 앞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 뒤에서는 동족제국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정체는 이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루군시상작전

사령부를 돌아치면서 《대북군사적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고아대고 저들의 해군무력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한 사실도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죄악을 찬미하는것은 그런 죄악을 다시금 저지르려 하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벌려놓으며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망동을 온 겨레는 용납치 않겠었다.

본사기자 주광 일

남조선 각계층 또다시 《싸드》장비를 반입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항의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9일 새벽 미국이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 또다시 《싸드》장비를 반입한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의 항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싸드》장비반입을 반대하는 현지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조선의 소성리 《싸드》철폐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싸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싸드》철폐평화회의는 같은 날 서울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드》장비의 추가반입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과 발언문에서 《COVID-19》위기조차 무시하고 또다시 《싸드》배치를 강박한 미국과 그에 굴복하여 장비를 끌어들이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터트리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며 절대로 미국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준철히 성토했다.

본사기자



2020년 5월 29일(토) 오후 1시 성주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하나마나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놀음

최근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종전의 방식인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수령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활동한다고 한다. 민심의 심판을 받고 파국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습대책으로 한것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인것이다. 무너져가는 당을 바로세우기 위해 다음해 4월까지 운영되는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두고 《다 죽는 송장에 링케르나 새나》라는 비난과 조소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 있다.

이런것을 만들어냈다.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새로 창당한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갔던자들이 권력에 환장이 되어 도로 기여들어와 영격 불어가지고 간판만 바꾼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시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한것만 보아도 이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알 수 있다. 똑바른 주의주장이나 리념은 없이 오직 권력만 추구하는자들이 모여 얼렁뚱땅 빚어낸 《미래통합당》의 일기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하라는 정치는 뒤전에 밀어놓은채 저

들만의 리익을 위해 《국회》에서 정쟁을 일삼고 또 당내에서는 매일과 같이 계파싸움을 벌이며 허충세월하는 《미래통합당》을 민심이 단호히 심판한것은 당연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변신하였지만 풍지박산의 위기에 처하였고 그것을 막는다고 하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어쩔쩔 만들어낸것이다. 돌이켜보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은 보수적역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써먹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은 2010년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이번까지 합치면 8차례로서 거의 1년에 한번씩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셈이라고 한다. 구태여 말한다면 거의 매해 한번씩 의식을 잃고 쇼크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환자들과 같은 신세가 된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면서 내든 구호가 《쇄신》과 《혁신》, 《젊은 피수혈》 등이었다.

그러나 그 식이 장식이라고 그것들은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여러차례의 수술로 갈도 들이매수 없는 말기암환자처럼 누에기투성이가 된 《미래통합당》이 살아보겠다고 또다시 역겨운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놀음을 벌리고있지만 그러다고 이따기 마한 집안의 신세가 달라질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김용 철

부산단체들 진일보수업연론폐간운동에 진입

남조선언론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부산경남주권련대와 부산경남대학생진보련합이 5월 27일 진일보수업연론폐간운동에 진입하였다. 이날 《조선일보》 부산지사앞에서 운동본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조선일보》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보도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친일언론으로서 일본의 구유언론과 구유세력에 복무하여왔다고 그들은 까발렸다. 그들은 《조선일보》 청산없이 친일청산도 국민주권실현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친일보수언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들 진행

보도에 의하면 5월 27일 남조선의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제히 전개되었다. 부산의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의 주최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이 과거 성노예범죄를 부정하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남조선에 있는 친일세력과 함께 전쟁범죄를 지우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세력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위곡, 피해자 명예훼손, 인권침해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에서도 《가해자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후안무치 미래통합당 규탄한다》, 《죄폐가 재뉴스 조선일보 폐간하라》,

《정의기억연대 지지자》 등의 웨집이 터져나왔다. 소녀상앞에서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시민모두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면서 일본정부는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서울의 일본대사관주변에 있는 소녀상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문제로 삼는 보수세력의 망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발언자들은 보수세력의 책동을 통해 성노예문제해결이 지연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본사기자

그 때를 깨 주랴

남조선의 보수적역당이 21대 《국회》에서 리속이 있는 알맹이들을 차지해보려고 양말질을 부리고있다고 한다. 그것을 보노라면 《그 버릇 개 줄가》라는 격언이 떠올려진다. 최근 민심의 단호한 심판을 받은 《미래통합당》이 《상생》과 《협치》를 떠들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 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자 못해 온갖 란투국이 벌어지는 《동물국회》로 만들어놓은 저들의 죄행을 반성이나 하는것처럼 《상생》과 《협치》에 대해 떠드는것을 두고 민심

은 쓴웃음만 지었다. 그들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쏠때도 믿을수 없기때문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지금 《미래통합당》 패거리들은 《국회》에서 지난 시기 저들이 부린 추태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반성도 없이 새 《국회》의 《노란 자위》들을 차지했다며 생떼를 쓰고있다고 한다. 지어는 저들의 무기가 성사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코트하겠다고 울러메기까지 하였다

바탕정질하는 철없는 세상 난 아이처럼 놀아내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두고 민심은 《지어먹은 마음 사흘 갈가》, 역시 싸움질에 이골이 난 미래통합당》, 《저밖에 모르는 놀부심보 가진 폐물야당》이라고 분노와 비난을 퍼붓고있다. 남조선언론이 그만쯤 버릇을 고치라고 욕도 퍼붓고 심판의 매도 안졌지만 어찌와 달라진게 없는 《미래통합당》이다. 또 달라질수도 없는 보수적역당이요 또 약도 없고 쓸모도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미래통합당》이 갈 곳은 지승의 길밖에 없다. 황금속

일본의 과거죄악사는 그 한때지나면제거되는 조선민족의 원한과 피로 얼룩져있다. 일본범죄를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피로 물들인 간포대지진때의 끔찍한 참변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도 일제야수들의 극악무도한 조선인 집단학살만행을 고발해주고 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일본의 간포일대에서는 파국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리히터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은 모든것을 파괴하였으며 그로 인한 화재는 순식간에 간포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수많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120여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하지만 력사에 수록된 간포대지진해해는 결코 자연적인 재난만이 아니었다. 이 재난을 악용한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참혹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파국적인 지진의 후파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시급한 구제대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되자 바빠맞은 일본당국은 극도에 이른 민심의 불만의 창끝을 제일조선인들에게 돌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이를 대대적인 조선인탄압과 학살의 기회로 삼을 무서운 음모를 꾸미었다. 일본당국은 《조선사람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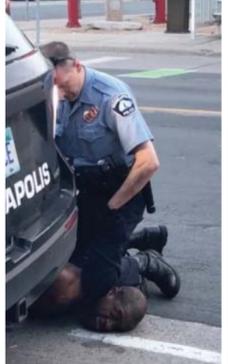
미국전역을 휩쓸고있는 반인종주의의 위, 300여개 도시로 확대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백인경찰이 무릎으로 46살 난 흑인남성의 목을 짓눌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미국사회에서 2부류공민취급을 당하며 갖은 멸시와 천대속에 살아야 하는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아폴리스시에서 백인경찰의 살인행위를 반대하여 시작된 반인종주의시위가 삽시에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3일현재 300여개 도시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주변에서는 격노한 시위자들이 《정의도 평화도 없다》, 《숨을 쉴수 없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미국기발을

내리워 불태워버렸다. CNN방송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군중들이 야간통행금지조치를 무시하고 항의행동에 떨쳐나서면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전하였다.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해 폭압에 동원된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쏘아대면서 탄압에 항복하였다. 백악관앞 시위상황을 전하면서 언론들은 시위군중은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탄, 섬광탄 그리고 곤봉과 기마경찰의 말발굽세례를 받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워싱턴상공에 군용직승기가 나타나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군용차량들이 배치되고 도시주변에서는 수많은 정

규군병력이 대기하고있다고 한다. 백악관주변에는 높이 2m 가 넘는 쇠물라리가 설치되었다. 경찰에 끌려간 시위자수는 이미 9 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미당국자들은 반인종주의 시위를 진압할것을 주지사들에게 강박하면서 방위군을 동원하여 《비천하고 아무 쓸모없는자들》을 멍치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전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당국은 고질적이고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간포지방을 조선사람들의 시체로 뒤덮은 살인귀들

고 명령하였다. 일본당국의 반인륜적인 살인지령에 따라 일제야수들은 장총, 일본도, 단도, 낫, 참대창, 곤봉, 쇠갈구리 등 각종 흉기들을 가지고 짐승도 낫을 불힐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데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살인귀들은 이르는 곳마다에 검문소를 만들어놓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연 고교고센(6원 55센)》이라는 발음하기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고 조선사람이라고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잔인무도하게 죽이였다. 일제살인귀들은 조선사람들을 보지만 하면 쇠죽이고 찢러죽이고 불태워죽이거나 팔다리를 톱으로 쪼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인건의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잔인한 수법으로 학살하였다. 간포지방에서 일제의 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한 애들은 조선녀성의 시체도 있었다. 그

이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학살화하고있다》, 《조선사람들이 무릎에 독약을 쳤다》 등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내뿜는 한편, 헌병, 경찰 등 무장집단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을 비롯한 우익단체들을 내몰아 조선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

고 또 다른 조선사람들을 톱으로 자르는 참혹성은 보기에도 끔찍하였다. 죽은 사람의 눈을 도려내는자도 있었다. ... 경찰서구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수 없는 형편이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일제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2만 3 000여명에 달하였다. 간포대지진때 감행된 조선인집단학살만행은 일제의 민족해탈주의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었으며 일본정부의 지시로 지휘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악독한 반인륜적범죄였다.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간 일제의 극악무도



일본의 간포지방에서 잔인하게 학살된 조선사람들

백광수

세상에 부럼없어라!

미래는 창창하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세대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기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된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들이 지닌 나라의 진도는 어두워지게 되고 그들의 모습이 밝고 명랑하면 나라의 미래는 밝아진다.

공화국에서는 후대들이 앞날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후대사랑에 어려어있으며 은혜로운 손길에 의하여 새 세대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르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관심과 배려, 보살핌은 한량 없다.

배려 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

공장에서 아이들이 쓸 질 좋은 학습장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보고싶으시여 공장

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공장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뻐하셨고,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좋아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시며 생산정형을 알아 보시었다.

자동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과 생산능력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공장장에서 울려 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며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나라의 기동감이 될 새대들의 소중한 희망과 꿈이 그려지는 학습장이어서 생산정상화를 그토록 당부하신것이었다.

그이께 있어서 제일 기쁜

때는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고 제일 행복한 때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꽃피는 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어느날 새로 건설된 평양중학교를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학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설을 시인하게 정말 좋았다고, 평양중학교건설팀을 지나가실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웃음이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려왔다고 하시었다.

그리시고 원아들에게 몇몇이학원을 알려주며 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듯 열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 주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며 원아들을 친부모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사려깊

은 정과 세심한 배려에 의하여 전국각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육아원, 교육원들이 훌륭히 꾸려져 원아들이 배움의 나라,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고 나라의 기동감들로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배워주시는 사랑과 배려에는 그들을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어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원산육아원과 교육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벽면에 그려져있는 그림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동화그림뿐 아니라 조선지도도 붙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나라의 지리와 자연에 대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도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나에게도 어린 자식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소조로 떠밀던 추억이 간직되어있다.

궁전의 총계에 아들의 작은 발자국이 찍히던 때가 엇그레런듯.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진 소조원종을 손에 쥐고 너무 좋아 뽕뽕 뛰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두 팔 벌려 자식을 받기듯 사람들의 마음을 자식처럼 끌어당기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여기에는 컴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이 있는 과학동과 수예소조실, 서예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공예소조실, 선악소조실, 민족악종합연주장, 전자악단합주연주장이 있는 예능동 그리고 극장, 체육관, 수영관, 합숙을 비롯한 교육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어찌 이뿐이랴. 내 조국의 어디 가나 수풀처럼 솟아있는 소년궁전과 소년회관들마다에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귀여운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맞게 희망의 나라를 활짝 꽃피우고있다.

황홀경을 펼친 궁전들마다에서 새 세대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지혜롭고 발달한 재간들이들로 성장해가는 모습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주곤 한다.

《국가의 혜택속에 왕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나라는 조선뿐이다.》, 《나에게 다시 태어날수 있는 행운이 차려진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고싶다.》...

이 땅의 현실을 대하느라

면 또 하나의 품목적인 특징을 찾아보게 된다.

건축물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 선후대만이 가득 차넘치는 것이다.

병원이라기보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육류아동병원이며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갖추어진 평양야동백화점, 어린이수조가 꾸려진 문수물놀이장, 아이들이 키작은 말을 타고 담을 구르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실내승마훈련장, 아이들이 마음껏 지치는 마시머스키장의 초, 중급수로...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아이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의 건축장식에도 민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의 리상과 포부를 담아 멋있게 완성시켜주는 화폭은 이 땅에서 련속 펼쳐지고 있으니 실로 이 땅은 아이들의 왕국이다.

이런 고마운 품에 안겨 공화국의 아이들이 자란다. 박영진

어디 가나 배움의 꽃대문이 활짝 열려져있고 누구나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일본에서 நட하고 하는 공립대학은 4년간 학비가 수백만 원이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40% 더 비싸다고 한다.

그런것조차도 일반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이로부러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지원기구나 일부 지방, 민간단체들에서 제공되는 대부금을 받아 공부하고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반납해야 함으로 결국에는 졸업하지 못하는 자 많은 빛을 지게 된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학공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학생 1명당 평균 5만 유로를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는 달리 내 갓 돈벌이수단으로 되어버린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조선의 래일을 보았다

—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시었던 후대관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이것은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조지 서기장의 찬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나라의 역군으로 부러워하며 자라나는 공화국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은 외국의 한 인사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찬란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민주공화국주제사상연구기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어린이들의 왕국인 조선은 아동친화적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훌륭한

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의 어린이건강보호제도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어린이들의 정신육체적성장발전을 위해 교육과 보건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정책화하여 실현한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어린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주고 가꾸어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조선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언제나 즐거움에 넘쳐있다. 네 팔신분 《쓰러미고》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어린이들은 인류의 미래이다.

새 세대들을 사회발전에 참담케 이바지할수 있게 키워주자.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반기 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존대하며 우대하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학생기반과 교

육제도를 확고히 하고, 사립학교와 학생소년궁전, 소년단, 야영소, 소년회관들에서는 언제나 배움의 종소리, 명랑한 웃음소리, 희망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린다.

학습용품공장, 개방공장, 학습장공장에서 후대사랑의 동음이 그치지 않는다. 후대들을 위하여 나라의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품들여 자라나는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아니라 일반자연지도와 동식물분포도, 자원분포도 같은것을 동시에 맞게 잘 만들어붙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원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앞날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사랑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은 참으로 숭고한것이다.

오늘 새 세대들이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회악과 전쟁, 분쟁의 희생물로 되고있고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받고 정신육체적으로 타락해가는 참상이 많은 나라들에서 빛 어지고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의 역군으로 품들여 키워주는 고마운 제도와 정지의 따듯한 보살핌이 있어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근심과 걱정을 모르고 희망에 넘쳐 행복을 누려가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은 나라의 소학교, 중학교들과 학생소년궁전, 소년단, 야영소, 소년회관들에서는 언제나 배움의 종소리, 명랑한 웃음소리, 희망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린다.

학습용품공장, 개방공장, 학습장공장에서 후대사랑의 동음이 그치지 않는다. 후대들을 위하여 나라의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품들여 자라나는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갈 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창 배움의 나이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일본에서 நட하고 하는 공립대학은 4년간 학비가 수백만 원이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40% 더 비싸다고 한다. 그런것조차도 일반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이로부러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지원기구나 일부 지방, 민간단체들에서 제공되는 대부금을 받아 공부하고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반납해야 함으로 결국에는 졸업하지 못하는 자 많은 빛을 지게 된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학공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학생 1명당 평균 5만 유로를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는 달리 내 갓 돈벌이수단으로 되어버린

자본주의사회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배움의 권리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고 돈이 없으면 현대판 문맹자가 되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격한 학생들은 구라를 팔릴 대신 그것을 촬영하고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 전파시켰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학대사건들이 우습게 나라나고있다. 우로 하여 많은 학생들이 우물 중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있다.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는 고급중학교 2학년 녀학생이 모욕을 당하고 배를 맞은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와사키시의 한 중학교에서도 3명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13살 나 하급생을 모욕하고 구라하다가 중당에서는 국제레조조직의 살인수법을 모방하여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청소년법》에 의하더라도 이

교정에 범치는 마음의 날소리

6월 3일부터 공화국의 모든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들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이날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두에산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새 학년도의 외친 심마음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 학년도를 맞아 첫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은 나라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고운 꿈을 피워가는 학생소년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과학교육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각지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새 학년도를 앞두고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개교준비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

치었다.

교육부문에서 교육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다 개선되었으며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경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위치한 김성주소학교에서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우리는 리영렬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특색있게 만든 울타리, 색조화를 맞춰 타일을 붙인 교사의벽, 인공잔디를 번듯하게 깎 운동장, 소학생들의 연령심리특성에 맞게 꾸려놓은 야외학습터...

길 불 안이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그쁘히 갖추어진 교사내부 또한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우리는 후대교육사업을 위해 이곳 교육자들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몇해사이 10월8일모범교수자가 수십명이나 늘어나고 학위소유자가 배추되었으며 많은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 특색있는 실습기구나 교편물, 창안소수유자가 되었다는 소식도 호뭇한것이었다.

새 학년도 교수준비기간에 교원들이 교재연구와 교편물제작을 끝내고 실리하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였는데 이러한 성과가

수업에 도입되면 학교의 교육수준은 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첫 수업을 시작한 1학년 1반 교실에서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글을 읽아가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짜랑짜랑 울리고있었다.

대동강에 사는 리춘옥녀성은 《우리 딸이 오늘 1학년에 입학하였다. 나라에서 준 멋진 새 교복을 입고 책가방까지 척 척 메고 기쁘어 어쩔줄 몰라하는 아이들을 보느라니 후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뜨겁게 어려와 눈물이 젖어든다.》고 말하였다.

개학날 첫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갈것이라고.

본사기자 홍범식

본사기자 리철

본사기자 리철

본사기자 리철

본사기자 리철

본사기자 리철

본사기자 리철

본사기자 리철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두 현실

가는 학비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배움의 꿈과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이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비극적인 사실들이 매일같이 보도되고있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이날 아침 새 교복차림에 멋쟁이가방을 메고 춤추듯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찾은 곳은 김성주소학교였다.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여기에는 탁아소와 유치원 건설, 식량과 식료품, 옷, 신발, 어린이용품공급 등이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여러가지 혜택과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문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보장 및 의복사 문제,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대우문제,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교육원의 조직운영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와 조건보장 등에 대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법문화되어있다.

이 법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훌륭한 교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여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법전이다.

이 법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돌리는것이 원칙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에는 수많은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어린이영양제공을 위해 전국에서, 군들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가 있다.

공공수업에서는 풍우유,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어린이영양물자들을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하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개발시키며 풍부한 정신과 예술적인 재능, 튼튼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매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책은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배분되고있다. 본사기자

다양한 태양에너지제품을 생산한다

—태양열설비보급사를 찾아서—

공화국에서 자연에너지 제품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태양에너지 리용범위확대와 새 제품 개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태양열설비보급사를 찾았다.

풍치수려한 만경대기술에 일떠선 태양열설비보급사는 태양열물가열기를 비롯한 태양에너지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자연에너지제품생산기지중의 하나이다.

이곳 일군은 보급사건물 옥상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기판들, 태양열

설비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연에너지의 덕을 토크하고 있다고 하면서 태양열설비생산기지로 이끌었다.

진공유리집열관과 보온물통, 지지틀생산공정의 설비들이 그르르하게 갖추어진 태양열설비생산기지에서는 태양열물가열기의 부품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동행한 일군은 물가열기의 핵심인 진공유리집열관과 공에 필요한 연료를 해결할 수 있는 수소발생기의 제작과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부속들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을 비롯하여 보급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보급사에서는 많은 단위들에 수많은 태양열물가열기를 보급하였다고 덧붙였다.

그 경제적실리는 수만kW 능력의 발전소를 건설한 것과 맞먹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 우리는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설된 기본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 한 방에 들어서니 태양열에너지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새 제품개발문제 놓고 기술자들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 기술집단이 만들어 내놓은 태양열을 리용하는 가마를 보았다.

에너지전환효율이 높고 밤과 혼제, 여러가지 로리도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설명만 듣고서도 태양열가마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그들이 아니었다.

섭이나 바다가방에서 먹는 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태양열담수장치도 손색이 없었고 평판식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을 결합하여 제작하는 건축일체형태양열물가열기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하면서 동시에 마감건재로도 쓸 수 있다니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하루빨리 세계를 따라잡는다는 특색있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단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높은 목표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인민들이 태양에너지의 덕을 더 크게 보게 되리라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틀림없다.

본사기자 김 철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한 장전남새전문화농장의 문화주택들

◆ 수박
수박에는 수분이 92% 들어있기 때문에 몸안에 수분을 보충해준다. 또한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 오이
오이는 상쾌한 맛을 느끼게 하므로 여름에 날것으로

먹어도 좋다. 오이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있으므로 몸안의 수분을 보충해주면서도

◆ 요구르트
요구르트에는 몸에 좋은 칼슘, 칼슘, 단백질, 비타민과 같은 광물성분이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르트에 장의 영양물질 흡수에 도움을 주고 면역체계를 안정시키는 균이 들어있는 것이다.

무더운 날에 팽창 환고뿌를 마시면 상쾌한감을 느낄 수 있다. 팽창을 정상적으로

마시면 당뇨병의 발생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발과 이음,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여름에 먹어야 할 식품

◆ 랭자
특성물질을 몸밖으로 내보내도록 도와준다.

◆ 랭자
특성물질을 몸밖으로 내보내도록 도와준다.

사람과 녹색식품은 서로 뉘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대자연의 녹색식품속에 포위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한다.

특화된 환경은 사람의 체온을 1~2° 내리우며 맥박을 분당 7~8회 적게 뛰게 한다.

또한 호흡을 고르게 하고 혈액순환속도를 떨어 구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 준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체온을 1~2° 낮추다면 생명을 150살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기발한 발견을 하였다.

숲속의 공기에는 음이온이 풍부하며 음이온은 신경계통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일뿐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신경쇠약, 폐기종, 관

상동맥병 등 질병들을 치료하기도 한다.

동시에 녹색식품은 살균작용을 하며 먼지와 독을 흡수한다.

나무는 연기와 먼지를 리파하는 리파기이다.

또한 녹색식품은 천연적인 《흡독기》라고 할 수 있다.

공업이 부단히 발전하는데 따라 공기중에 이산화황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으며 인체에 큰 해를 주고 있다.

이런 해로운 물질을 흡수하는 것이 나무나 꽃, 풀이다.

나무는 그늘을 지어 온도를 낮추며 기후를 조절한다.

소음도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데 너비가 40m나 되는 숲지대는 10~15dB의 소음을 막아낸다.

금강산 내금강의 명경대는 중생대 유라기층의 화강암구조면이 비바람에 의해 깎여 이루어진 선바위이다.

명경대는 높이 90m, 너비 30m 되는 평장형 선바위이며 가로세로 절리가 잘 형성되어 있다.

같이놓는듯 반들거리는 바위면이 불그스레하면서도 회오리무늬를 띠고 있어 마치 큰 경대를 방불케 한다고

하여 명경대라고 한다.

명경대앞에는 맑고 깨끗한 황류담이 있어 여기에 명경대가 비칠뿐 아니라 계절에 따른 주변경치가 비껴들어 마치 한폭의 그림과 같다.

명경대에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명경대앞에 서면 모습이 아름답게 비쳐지고 게으르고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울에 비쳐지지 않는다. 만약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쳐지지 않으면 높고 먹기 좋아하고 약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이곳 녀인들은 명경대를 지날 때면 서로 자기들의 모습을 비쳐보면서 즐겁게 한바탕 춤을 추었다고 한다.

내금강의 풍치를 돋구어 주는 명경대는 천연기념물 제23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때문에 크게 노한 아버지가 리징을 불러놓고 좋아리를 치며 꾸짖었는데 그는 눈물로 새를 그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정력적으로 그림공부를 하여 이듬해는 화가로 자라난 리징은 청록산수, 금벽산수 등 이채를 띠는 작품들을 창

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금니화를 특별히 잘 그려 널리 알려졌다.

그는 전통적인 금니화형식의 조선회화를 계승발전시켰으며 특히 금니로는 불화나 풍경만을 그리던 종래의 틀을 깨고 꽃과 짐승도 잘 형상함으로써 당시 화단의 회화적양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금니화작품으로는 《독수리》, 《산수도》, 《사슴》, 《거북》 등이 있다.

《산수도》는 리징의 그림 재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금니화작품의 하나이다.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구름바다위로 우뚝 치솟았으며 푸른 나무 우거진 바위산골짜기로는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한 사람은 구름에 휘감긴 산의 황룡정에 취하였는지, 구슬쿨러가는 듯 한 물소리에 넋을 잃었는지 몸이 바위에 붙은 채 짐승도 못 일어설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 모습에 동위에 다가가신 사람들도 명상을 깨뜨릴까 저어하며 어찌 못하고 서 있다.

자연과 인물이 어울려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이채를 띤 금니화와 리징

리징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대표적인 금니화화가이다. 리징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한번은 다락에 올라가 그림공부를 하느라고 밤낮의 것도 잊고있었는데 집에서는 그를 찾느라고 사방으로 다니던 끝에 3일만에야 겨우 찾아냈다.

이때문에 크게 노한 아버지가 리징을 불러놓고 좋아리를 치며 꾸짖었는데 그는 눈물로 새를 그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정력적으로 그림공부를 하여 이듬해는 화가로 자라난 리징은 청록산수, 금벽산수 등 이채를 띠는 작품들을 창

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금니화를 특별히 잘 그려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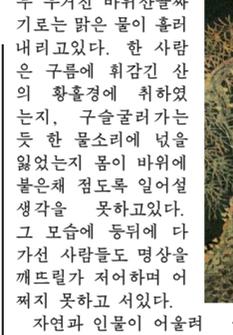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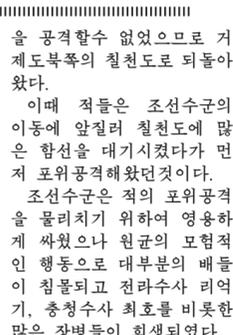
그는 전통적인 금니화형식의 조선회화를 계승발전시켰으며 특히 금니로는 불화나 풍경만을 그리던 종래의 틀을 깨고 꽃과 짐승도 잘 형상함으로써 당시 화단의 회화적양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금니화작품으로는 《독수리》, 《산수도》, 《사슴》, 《거북》 등이 있다.

《산수도》는 리징의 그림 재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금니화작품의 하나이다.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구름바다위로 우뚝 치솟았으며 푸른 나무 우거진 바위산골짜기로는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한 사람은 구름에 휘감긴 산의 황룡정에 취하였는지, 구슬쿨러가는 듯 한 물소리에 넋을 잃었는지 몸이 바위에 붙은 채 짐승도 못 일어설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 모습에 동위에 다가가신 사람들도 명상을 깨뜨릴까 저어하며 어찌 못하고 서 있다.

자연과 인물이 어울려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장에서 (2019년)

신기한 풀

배가족이 등허리에 가서 배를 정도 배고픔이 극도에 달한 한 사람이 좋은 수를 생각해냈다. 그는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말하였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활시켜주는 신기한 풀을 알고있습니다. 그 풀을 가지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를 받아주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욕심 많은 한 부자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였

다. 그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집에 불러들였다.

《그런 신기한 풀이 도대체 어떤 풀이냐?》

그는 부자집에서 한끼 실컷 배불리 얻어먹은 다음 부자를 데리고 일판으로 나갔다.

그는 버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논판에 들어가서 비이삭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 신기한 풀입니다. 방금전까지 배고파서 죽어가던 내가 바로 이것을 먹고 이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화

리순신과 로인 (1)

글 박춘명, 그림 채대성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어 다섯해가 지난 1597년 7월 어느날이었다.

3도수군통제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량옆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고장 백성들이 나와있었다.

이들은 《백의종군》(벼슬이 없이 보통병사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하다가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어 돌아오는 리순신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 통제사어른께서 돌아오시면 왜놈들을 몰살시키고 말겠지요.》

《어서 어른이 오셔야 우리도 이 피난보따리를 벗어 던지고 살아갈텐데요.》

아직도 끔찍한 보침을 지고 있는 한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마라도. 리순신어른이 게실 때야 왜놈들이 어디 얼씬하거나 했나요.》

옆에 섰던 한 늙은이가 말을 받았다.

한낮이 가까와오자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다.

이때 한 늙은이가 아들인 뜻깊은 젊은이를 데리고 땀을 흘리며 나타났다.

《애야, 어서 이리로 나오나라. 그래야 통제사어른께 말씀을 드려보지 않겠느냐.》

그들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어디 먼데서 오시는가요?》

《그런데 젊은이는 아들인가요?》

《그렇다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임진년부터 수군에서 싸우다가 저 꼴이 되었다우.》

《저 꼴이 되다니요. 어디 병신이 되었나요?》

그 늙은이는 편편한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병신이 아니라 곧 딸

어진 조롱박신세가 되었다우.》

《왜요?》

점점 모를 일이라는 듯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글세 리순신어른이 통제사로 있을 때는 싸움도 잘했지요. 그런데 원군통제사가 온 다음부터 여기저기 밀리더니 글세 거제도알바다싸움에서 죽을뻔 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소.》

로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하- 그렇게 되었구만.》

그제야 알았다는 듯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다.

생각하면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이지가 하였다.

불행은 리순신이 이곳을 떠난 후부터 생겨났다.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원군이리는 사람은 본래부터 공명파 출세욕이 강했다가 무능하고 비겁하였다.

그는 통제사로 임명되어오자 자기식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정연한 지휘체계와 군사기물을 문란시켜놓았다.

이에 수하의 막료들이 그 리지 말것을 충고했다.

이렇게 되자 원군은 다시 유능한 그들을 파면시키기 시작하였다.

《우리 수군이 녹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사방에서 이런 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자 원군은 다시한번 공명을 떨쳐볼 생각을 했다. 자기의 위력을 시위해볼 중량을 했던 것이다.

원군은 적아간의 역량관계

도 타산하지 않고 수군에게 출동명령을 내렸다. 타산도 없이, 자신도 없이 출동하였던 우리 수군은 그만 안골포싸움과 응포싸움에서 많은 손실을 내었다.

원군은 도원수 권로로부터 호연 추궁을 받았다.

그러자 원군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고 다시한번 자기의 명예를 떨쳐볼 생각을 하였다.

원군은 7월 중순 또다시

타산도 없이 모험적인 출전을 하였다.

수군은 절영도알바다까지 이르렀다.

한 항행으로 군사들이 지친데다가 날이 어두워 적선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자 원군은 다시한번 공명을 떨쳐볼 생각을 했다. 자기의 위력을 시위해볼 중량을 했던 것이다. 원군은 적아간의 역량관계